

SENIOR조선

JULY
2013
VOL.15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 senior.chosun.com



Come Inside

캐나다에서 다시 찾은 신혼
리마인드 허니문
리조트 스타일 vs 크루즈 스타일

FOUNDED IN 1755 IN GENEVA

Patrimony Traditionnelle 14-Day Tourbillon



이제 롯데 에비뉴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명동 롯데 에비뉴엘 2층
에비뉴엘 부틱 02 2118 6116



VACHERON CONSTANTIN

Manufacture Horlogère, Genève, depuis 1755.

inside

VOL.15 JULY 2013 <시니어조선>은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이들을 위한 섹션 매거진입니다.



- 06 SECOND LIFE** 나는 왜 목수를 꿈꾸는가
'목수'라는 직업에는 로망이 깃들어 있다.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의 전업 리스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목수에 대하여.
- 08 TRAVEL** 캐나다에서 다시 찾은 신혼, 리마인드 허니문
올해 결혼 20년 차로 접어든 김판규, 이선일 부부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로 리마인드 허니문을 떠났다. 천혜의 풍경 속에서 그들이 보낸 6일간의 달콤한 시간.
- 12 THIS CAR** K9과 떠나는 건축 기행 ②
기아차의 프리미엄 세단 K9의 건축 기행 두 번째 장소는 성북동에 위치한 한국가구박물관이다. 한국적 미감의 집결체인 한국가구박물관에서 K9의 진면목을 헤아려본다.

- 14 THIS MAN** 호서대 이기영 교수
식품공학자, 환경공학자이자 싱어송라이터. 2001년 이후 '지구를 위하여', '한강은 흐른다' 등의 노래를 꾸준히 발표해온 그에게 노래는 그저 일상이다.

- 15 FOOD** 고기 먹고 함내자!
더위에 지친 여름이면,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는 옛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강남 일대에서 맛볼 만한 소고기 수육 요리 몇 가지.

- 16 LOOK** 리조트 스타일 vs 크루즈 스타일
스타일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 휴가지에서도 중심은 금물이다.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다.

- 18 SENIOR CARE** 휴가 떠나기 눈치 보이시나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이들이라면 하나같이 여의치 않은 여름휴가. 올해도 휴가를 그대로 반납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몇 가지 조언.

- 19 SENIOR EXPO** 시니어 엑스포 열전
오는 10월 열리는 '2013 서울국제시니어엑스포'를 비롯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니어 대상 행사들.

- 20 ENTERPRISE** K9의 특별한 선물
세상에 좋은 자동차는 많다. 하지만 고객의 품격까지 세심하게 지켜내는 차는 드물다. 최근 기아차는 프리미엄 세단 K9 고객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

- 24 FINANCE** 생애 재무설계,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전략. 은퇴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 투자를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 25 HEALTH** 日光 흡색점 조심하세요!
여름철이면 유독 피부를 괴롭히는 자외선. 방심했다간 각종 피부 색소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 그중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노인성 흡색점.

- 26 RESORT**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타임셰어 오너십
내 집 같은 곳에서 휴식을 즐길 순 없을까.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의 타임셰어 오너십은 바로 그런 서비스.

- 27 BULLETIN** 이달의 소식
보스의 프리미엄 럭셔리 '씨네메이트 1SR', 클래식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문물량의 '스타 데이트 오토매트 컬렉션', 피에르시가의 한정판 쿠바 시가 '엘레이델문도 에나버시리오' 등.

PUBLISHER
시니어조선
발행인 양근만 yangkm@chosun.com
방정오 cbang@chosun.com

CO-PUBLISHER
시니어파트너즈
대표 박은경 maypark@yourstage.com
상무 김형래 hr.kim@yourstage.com
이사 전영선 ys.chun@yourstage.com

EDITORIAL & ART
편집장 정지현 toctoc@chosun.com
선임기자 박소란 psr@chosun.com
객원기자 노준형 jh.roh@yourstage.com
박철진 soooook49@naver.com
사진 C.영상미디어
디자인 벌디자인
미술교정 봉수연 swimmingb@naver.com
교열 윤현숙 irene0827@hanmail.net

ADVERTISING & MARKETING
팀장 양훈식 huns@chosun.com
과장 이진섭 realfire@chosun.com


ONLINE
부장 이재훈 jacopas@chosun.com
기자 박준현 pjh81@chosun.com
웹에디터 문형경 ellira@chosun.com

INFORMATION
취재 편집 02-724-7868
광고마케팅 02-724-7849
재무 02-724-7864
대표 메일 senior@chosun.com
트위터 @seniorchosu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niorchosun

창간일 2012년 4월 25일
발행일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등록번호 서울 다10391
등록일자 2012년 3월 19일
발행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인쇄 (주)타라티에스
출력 아이덴지프로세스

※ <시니어조선>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아파트, 원효로, 한강로, 명동, 남대문로, 무교동, 공덕동, 서교동, 디지털단지, 경기 분당, 과천, 일산, 영통, 기흥 등 수도권 프리미엄 지역 및 오피스 밀집지역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배포됩니다.

※ 본 매거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시니어조선>의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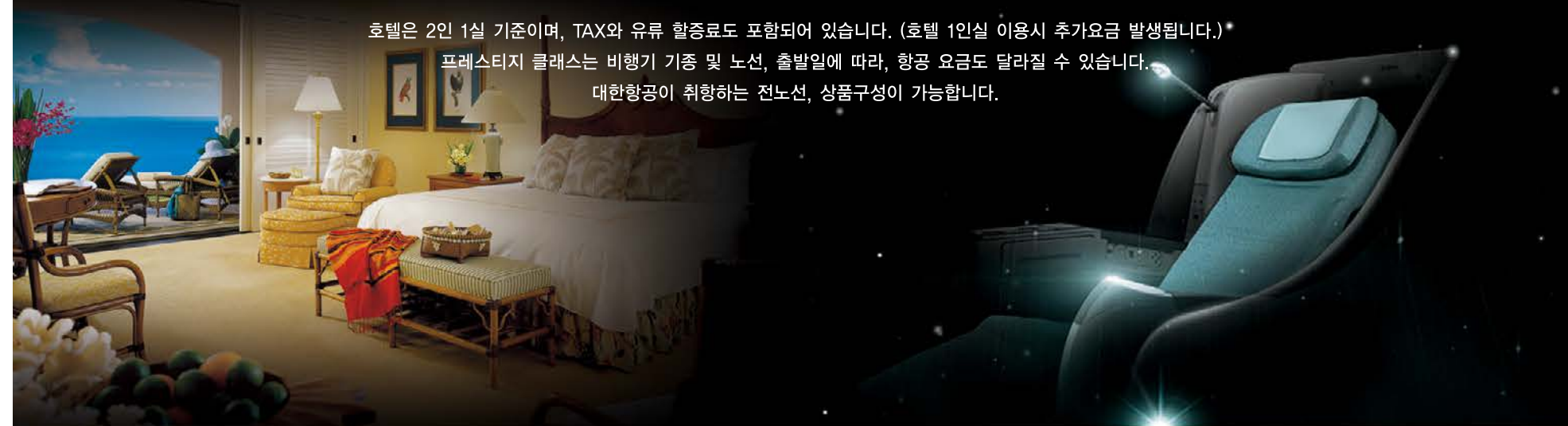
 <시니어조선>은 국내 대표 매거진 포털 APP '탐진'에서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조선> 7월호 이벤트
인생을 품격 있게 경영하는 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을 묻습니다.
지금 당장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시니어조선>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총 다섯 분을 추천해 뮤지컬 '스펠아웃'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GIFT 뮤지컬 '스펠아웃' 관람권(2매) 5명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enior.chosun.com) 또는 이메일(senior@chosun.com)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restige Class Airtel

프레스티지 클래스 항공 요금 수준에 특급호텔 1박 무료

Prestige Class AIRTEL이란, 대한항공의 Prestige Class 항공과 특급호텔 1박을 포함하는 특별상품입니다. (TAX와 유류할증료 포함)
본 Prestige Class AIRTEL 상품의 혜택은 KALPAK을 통하여 예약 및 발권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한합니다.



호텔은 2인 1실 기준이며, TAX와 유류 할증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텔 1인실 이용시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프레스티지 클래스는 비행기 기종 및 노선, 출발일에 따라, 항공 요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전노선, 상품구성이 가능합니다.



KALPAK

The Luxury Travel Collection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빌딩 6층 한진관광 KALPAK TEAM 대표전화: 02)726-5800 Fax: 02)771-9084 http://www.kalpak.co.kr
6th Floor, Korean Air Bldg., #41-3, Seosomun-Dong, Jung-Gu, Seoul, 100-813 Korea

SECOND LIFE



나는 왜 목수를 꿈꾸는가

**‘목수’라는 직업에는 막연한 로망이 깃들여 있다.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의 전업 리스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직종이기도 하다.
나만의 공간에서 목수로 살아가는 즐거움에 대하여.**

“인생은 당신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책장을 넘기다 우연히 발견한 문구에 눈길이 멈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소속된 직장 없이 되는 셈이니 자신의 존재감마저 사라질 것 같아서다. 하지만, 그렇기만 할까. 학교를 다니고, 졸업 후 입사해 20~30년간 일하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떤가.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가장으로서, 사회인으로서의 책임감 속에서 어느 정도 나를 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찌보면 직장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은퇴는 참 인생의 시작일 수 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난 뒤 당당히 나의 권리와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목, 수, 입 밖으로 소리내어 발음해보면 어딘지 모르게 투박하고 소박한 느낌이 묻어나는 어감을 지닌 목수는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이상적인 직종 중 하나로 꼽힌다. 젊은세대들은 정형화 된 기업 문화를 거부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시기의 대안으로서 이를 선호한다. 정신적 여유로움을 느낌과 동시에 몸을 움직여 일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이 사는 때문이다. 은퇴를 앞두고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니어세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목공예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다. 소설가 박범신 또한 어느 책에서 말년에 조그만 목공소 같은 것을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소설이라는 게 논리가 가득 쌓여있고 논리의 그물망 속에 작가가 들어 있는 거다. 소설을 쓴다는 게 굉장한 압박인데 목공예를 하고 있으면 그런 논리로부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고향 논산에 내려가 기구 좀 갖춰놓고, 좋은 대패도 사서 손넙작 의자나 식탁 같은 것을 짜고 싶다”며 목공예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 것.

누구나 싱그러운 나무 향이 감도는 공간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는 작업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보이는 것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듯 목작업도 그렇다. 심리적 힐링이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무턱대고 목공 전문가로 과정에 등록하고, 장비를 사들이기 전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수고와 인내가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창업을 하기 위해 목공을 배우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기에 최근 들어 가구 공방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DIY 가구 공방의 경우 업체 간의 경쟁이 만만치 않아서 가격 경쟁력이나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는 데 애를 먹는다. 원목을 다루는 본격 목가구 공방을 계획한다면 당장 수익을 낼 욕심을 버리고 일정 기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공방 고유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다른 목가구와 차별성을 꾀해야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목공에 배울 수 있는 곳

나만의가구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성리 920-2

문의 033-243-2554

www.diycc.co.kr

나무공경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48

문의 02-2642-0945

www.woodscape.co.kr

만들고싶은것들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331-33 토디하우스

문의 02-498-9626

www.diylife.co.kr

메이앤공방

주소 서울시 마포구 중동 48-21

문의 02-307-2022

www.mayn.kr

유니크 마이스터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60-1

문의 031-716-3339

www.uniquemeister.com

정재원가구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264-7

문의 070-4024-8662

www.jeongjae.com

해멜레공방

주소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659

문의 031-760-7600

www.diyhafele.co.kr

후아의나무공방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912-5

문의 031-967-3313

www.huawood.com

목공은 취미가 곧 직업인 분야다. 목공에 관심이 있다면 일단 해보는 게 가장 좋다. 1년치 등록금을 한꺼번에 내는 전문가반에서 시작하지 말고 우선 취미반에 등록, 직접 경험해보면 본인과 맞는 일인지 아닌지 판단이 설 것이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창업을 목적으로 배우든, 그냥 해보고 싶어서든 목공을 배워 놓으면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스스로 디자인한 가구를 만들고 생활 속의 한 부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 김성현(메이앤공방 대표)〈젊은 목수들〉(프로파간다)中



INTERVIEW 목수 진홍범

“목작업을 하면서 인생의 결이 바뀌었다”

대학에서 건축도시계획을 전공한 후 부동산개발기업에 입사. 수도권 일대를 누비며 성실해 일한 진홍범 씨. 어느날 갑자기 목수로 전업해 ‘목수 진씨’로 살아온 지 6년차에 접어든 그를 만났다.

Q 전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누구나 20대 때에는 방향의 시기를 겪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유홍준 지)라는 책을 통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다. 건축을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다. 졸업할 때인 2002~2003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어서 부동산 개발 회사에 취직했다. 출근하고, 시장 조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접대 술자리나 회식에 참석하고, 퇴근하는 반복적인 생활의 연속이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도 받고, 성과를 낼 때면 뿌듯하기도 했다. 그런데 7년이 한계였던 것 같다.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아니,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2000년 후반에 이르러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동종 업계에서 이직조차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목공소를 열었다.

Q 두 번째 직업으로 목수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2006년 즈음 취미로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을 한옥에서 보낸 까닭인지, 20대 때 우리나라 고건축에 심취해 유형 사찰이나 전통 가옥을 찾아다녀서인지 목작업에 막연한 흥미를 느끼고 있더라 취미반에 등록했다. 뜻밖에 공방에 20~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 내 머릿속에 새겨진 목수 이미지는 나이든 남자였다. 어려서 동네 목공소에 가면 흔히 보게 되는 그런 ‘아저씨’만 생각했었는데, 많이 달랐다.

여하튼 주말마다 재미있게 배웠다. 그러다 2007년 즈음 이직을 고려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전업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갖 결혼한 아내도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한 번 도전해 보라며 내 편이 되어 주었다. 이후 다쳐올 상황을 알았다면 설불리 결심하지 못했을 거다. 1년만 버텨보자, 내년에는

진홍범 씨는 전통 목가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목공예 작가다. 2009년 헤이리 유리재 갤러리, 공평 아트센터, 2011년 경인 미술관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연 바 있다. 홈페이지(www.jinhongbum.co.kr)에 가면 그의 작업을 볼 수 있다.

달라지겠지. 1년만 더해보자며 보낸 시간이 3년이다. 희망과 열정만 가득했지 경제적 성과가 없었다. 이후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소득은 제로에 가깝다. 판매가 이루어져도 원목이나 기계 사는 데 재투자 하다보니... 만약 이게 치킨가게였다면 진작에 정리했어야 한다. 손익 구조가 형편없는 치킨가게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과감히 결정을 내려야겠지만, 목공소는 다르다. 명품을 만드는 목가구 공방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Q 목작업을 하는 데 중요한 자산은 무엇인가 내 자산 중 하나는 나이다. 어린 시절을 보낸 1970~1980년대만 해도 한국적인 무언가가 생활 전반에 묻어 있었다. 동네 모습이나 생활 방식 등 그 시절의 아련한 인장과 맺어 있다. 내가 그런 우리의 정감을 느꼈던 마지막 세대గా 아닐까 싶다. 지금의 20~30대는 당시의 경험이 없어서 그 느낌을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즘 복유럽 스타일 가구가 유행이지만, 내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모든 가구는 그 지역에서 살아 가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생활 방식에 맞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나뭇의 미감이 있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디자인이아말로 한국인의 성정에 가장 잘 맞는 것이다. 목작업을 할 때 한국 전통 가옥과 생활 양식을 근간으로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Q 목수로 사는 즐거움은 어떤 것인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찾은 기분이다. 조직에 잘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나의 경우 조직보다 개인적인 활동에 맞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혼자 힘으로 해냈을 때 얻는 성취감이란!

직장 생활이 실질적인 학문인 ‘경영학’이라면 목공 작업은 정신적인 소양을 높이는 ‘인문학’과 같다고 할까. 나는 돈보다는 성취감을 택했고, 한 계단 한 계단 위를 향해 올라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지만 그럼에도 행복하다. 수백억 연봉을 받는 스포츠 선수가 부럽지 않고, 기업의 CEO라는 명에가 탐나지 않는다면, 이보다 좋은 직업은 없지 않을까.

TRAVEL

“캐나다에서 신혼의 설렘
그대로 안고 떠나요”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관광청은 이 시대의 멋진 중년 부부에게 리마인드 허니문을 선물했다. 그 첫 번째 행선지인 브리티시컬럼비아로 떠난 행운의 주인공은 김판규·이선일 부부. 올해 결혼 20년 차로 접어든 이 금실 좋은 부부는 천혜의 풍경 속에서 6일간의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여행은 계획과 동시에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가, 1994년 결혼에 골인한 후 지난 20년간 맛벌이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김판규(48), 이선일(46) 부부. 부부는 최근 20주년 기념 리마인드 허니문을 준비해왔다. 외도딸을 대학에 보낸 후 둘만의 시간이 부족 늘어난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는 우리 부부에게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중요한 시기예요. 지난 세월 함께 열심히 살았던 만큼 낯선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생활을 계획하길 원했죠.” 그런 부부는 곳곳에 보물 같은 풍경을 간직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로 떠나길 주저하지 않았다.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관광청이 주최한 ‘리마인드 허니문’ 이벤트 공모에 직접 자연을 보낸 선일 씨는 “20년간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왔더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로 당첨에 대한 기쁨을 전했다.

기대감으로 한껏 부푼 부부는 마침내 지난 6월 3일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9시간의 비행 끝에 밴쿠버에 도착, 츠왓슨 선착장에서 40년의 취향 역사를 지닌 BC페리를 타고

빅토리아로 향했다. 조지해협을 건너는 동안 바라본 드넓은 하늘과 바다, 평화가 깃든 여러 개의 섬. 그 아름다움에 감탄한 부부는 페리 갑판 위에서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중세의 몇 간직한 빅토리아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주도(州都) 빅토리아는 중세의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곳은 이너하버,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와 호수와 같은 모습을 형성한 항구다. 항구 주변에는 웅장한 건물과 색색의 아름다운 꽃, 나무가 가득하다. 근처 호텔에 짐을 풀 부부는 아름다운 항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즐겼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맛이라 할 수 있는 연어 요리는 특히 일품. 위도가 높은 캐나다는 이 계절 저녁 9시를 넘겨서야 서서히 해가 지는데, 이후 펼쳐진 낭만적인 야경은 빅토리아가 부부에게 안긴 최고의 선물이라 할 만하다. 주변을 밝힌 수많은 불빛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었다. 다음 날 부부는 이너하버 주변을 산책하며



1 11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 정원 부차트 가든. 크게 다섯 개의 정원으로 나누는데, 석화석을 파내 움푹 들어간 곳에 만든 선크 가든이 가장 유명하다. 2 야경이 특히 멋진 빅토리아의 중심 이너하버. 3 야간까지 수상가옥과 물개를 만날 수 있는 피셔맨스와프. 4 1904년 완공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사당. 고풍스러운 33개의 푸른 지붕 꼭대기에는 영국인 탐험가 조지 밴쿠버의 입상이 있다. 5, 6 빅토리아의 상징인 페어몬트 엠프레스 호텔에서 즐기는 영국식 애프터눈 티.

본격적으로 빅토리아의 향취를 만끽했다. 항구 부근 피셔맨스와의 야간 야경이 인상적인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사당 잔디밭을 거닐다 점심에는 빅토리아의 상징인 페어몬트 엠프레스 호텔에서 영국 왕실의 전통이 깃든 애프터눈 티를 즐겼다. 3단 트레이에 세팅된 스콘과 타르트, 마카롱 등과 즐기는 홍차의 깊고 그윽한 맛에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행복하다”는 말을 감탄사처럼 연발했다. 이날 찾은 골드스트림 주립공원 역시 빅토리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물. 1000년 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 삼나무, 편백나무, 측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유독 숲을 좋아한다는 선일 씨는 “수종 자체가 다르니 국내에서 보는 군락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이 마치 〈제인 에어〉 같은 소설의 배경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8~11월까지 이곳 개울에서는 세계 최대의 연어 페이딩을 볼 수 있다. 그 모습이 황금빛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 바로 골드스트림이다. 빅토리아에서 북으로 얼마간 달리다 보면 세계적인 정원 부차트 가든도 만날 수 있다. 선크 가든, 로즈 가든, 일본 가든, 이탈리아 가든, 지중해 가든 등 다섯 개의 정원으로 꾸며진 이곳에 만발한 각양각색의 꽃들을 감상하다 보면 부부의 말대로 빅토리아가 얼마나 “전통을 잘 간직하 아름다운 꽃의 도시”인지 깨닫게 된다.

밴쿠버 도심에서 만나는 원시림

사흘째 되는 날 부부는 수상비행기를 타고 밴쿠버로 향했다. 난생처음 타본 수상비행기가 7000파트 상공을 나는 30여분 동안 손에서 한시도 카메라를 놓지 않은 판규 씨. 연신 셔터를 누른다. 비행기 밖으로는 광활한 바다와 섬, 산맥, 호수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주지하듯 밴쿠버는 캐나다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꿈의 도시. 순수한 자연환경과 활기찬 대도시 비즈니스 환경을 두루 갖췄고 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차이나타운을 돌아 최초의 다운타운인 개스타운의 증기시계 앞에서 부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영국 여왕이 기증했다는 캐나다 유일의 증기시계는 개스타

운의 명물. 15분 단위로 시계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 새로운 모습이 호기심을 자아냈다. 다운타운에서 북서쪽으로 뒤편 나온 반도에는 그 유명한 스탠리공원이 있다. 400만㎡ 규모의 이 공원은 전 세계에서 도심 속 공원 가운데 가장 큰 곳으로 꼽힌다. 광대한 원시림 사이 수많은 산책로가 거미줄처럼 열거설기 이어진 것이 이채롭다. 산책을 마치고 스탠리공원의 해안도로와 연결된 잉글리시베이에 들른 부부는 해변가에서 일광욕을 즐기거나 요트를 타는 사람들과 만나 잠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저녁에는 216m 높이의 허버센터에 올라 스테이크와 시푸드를 즐겼다. 건물 꼭대기에 마련된 접시 모양의 전망대는 회전식으로, 가만히 앉아서도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밴쿠버 시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다. 부부는 멋진 풍광이 내려다보이는 둘만의 오붓한 테이블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밴쿠버 개스타운의 명물 증기시계. 15분 단위로 증기를 뿜어낸다.

김판규·이선일 부부가 꼽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허니문 BEST 5



1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사당
1897년 완공된 빅토리아의 명물. 건물 꼭대기에는 밴쿠버를 항해한 18세기 영국 항해가 조지 밴쿠버의 입상이 자리하고 있다. 의사당 주변은 각종 나무와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산책코스. 밤이 되면 건물 실루엣을 따라 켜진 3300개의 불빛이 이너하버 수면에 비쳐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2 부차트 가든
1904년 이탈리아인 부부 로버트와 제니가 석화암 채석장에 꽃과 나무를 심으면서 세계적인 정원으로 탈바꿈시켰다. 다섯 개의 정원은 각양각색의 꽃이 만발하고, 그 사이사이로 산책로가 연결돼 있다. 석화암을 파낸 곳에 꽃을 심었기 때문에 15m 위에서 정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3 수상비행기
페리와 함께 캐나다만의 독특한 교통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창공에서 내려다보면 도심은 물론 웅장한 산맥과 섬, 원시림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물 위에서 뜨고, 착륙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밴쿠버-빅토리아 간 수상비행기를 이용하면 30분 만에 이동 완료.



4 캐나다 플레이스
밴쿠버의 랜드마크. 범선 모양의 웅장한 건물로, 마치 거대한 배가 정박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86년 열린 밴쿠버 엑스포를 기념해 지었고 내부에 호텔, 레스토랑, 영화관 등이 있다. 인근에는 알래스카로 떠나는 크루즈 선박 터미널도 자리한다. 매년 7월 1일 캐나다 데이에는 이곳에서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진다.



5 캐필라노 서스펜션 브리지
캐필라노 강에서 약 70m 상공에 자리한 길이 137m의 다리로, 1889년 건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유명세를 떨쳤다. 바람만 불면 삐걱대는 소리가 심해 원주인 사이에서는 ‘웃는 다리’로 불린다. 아찔한 계곡 사이 흔들거리는 다리를 다 건너면 나무들이 군락을 이룬 산책로를 만날 수 있다.



7 전 세계에서 도시를 걷기 좋은 곳으로 꼽히는 스탠리공원. 광대한 원시림 사이 수많은 산책로가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다. 8 해발 1249m의 그라우스 산으로 향하는 곤돌라. 9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세 번째로 낙차가 큰 폭포인 사노 폭포. 10, 11 216m 높이의 허버센터. 건물 꼭대기 레스토랑에서는 밴쿠버 시내를 360도로 조망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오래 같이 지내게 될까?” “이제 시작이지. 50년 이상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난 20년간 그랬듯 앞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두 사람.

자연 속 가득한 액티비티와 낭만

다음 날 아침 일찍 향한 그랜빌아일랜드는 부부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다. 다운타운 남서쪽에 위치한 그랜빌아일랜드는 원래 공장지대였지만 1970년 개조를 통해 다양한 숲과 레스토랑, 공연장이 들어서면서 '문화의 섬'으로 탈바꿈한 곳. 이곳의 퍼블릭마켓이 특히 유명하다. 마켓을 총괄하는 세프의 안내로 마켓 투어에 나선 부부는 2시간 가량 곳곳을 돌며 개성 강한 공예품을 구경하고 각종 먹거리를 맛봤다. 선일 씨는 “과연 베리의 천국 캐나다답다. 내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등 각종 베리를 이용한 식품이 많다.” 마켓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부는 제철 과일인 블루베리와 체리를 구입해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현지에서의 재미를 만끽했다.

닷새 날, 흐린 하늘에서는 이따금씩 빗방울이 떨어졌다. 이날 부부가 향한 곳은 사노 폭포.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스카미시 지역에 위치한 높이 335m의 이 폭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세 번째로 낙차가 큰 폭포다. 안개가 서린 폭포는 하나의 생명체인 듯 고요한 숨결을 뿜어냈다. 손을 잡고 폭포 주변 공원 산책로를 거닐며 부부는 쉽없이 서로를 카메라에 담았다. 돌아나서는 길에는 웨스트뱅크의 끝자락인 호소베이에서 캐나다인들이 즐겨 먹는다는 생선과 감자튀김을 곁들인 피시앤칩스를 맛보며 여행자의 자유로움을 느껴보기도 했다.

노스밴쿠버 캐필라노 협곡으로 걸음을 재촉한 부부. 캐필라노 협곡은 캐나다의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다. 먼저 밴쿠버의 식수원인 클라블랜드 댐으로 향했다. 아찔하게 쏟아지는 물줄기와 댐 주위 공원 풍경에 반해 잠시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이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캐필라노 협곡을 연결한 높이 70m의 서스펜션 브리지를 건너 부부. 위낙 겁이 없고 모험심이 강한 두 사람이다. 캐필라노 협곡에는 서스펜션 브리지 외에 트리톱스 어드벤처라는 다리도 있다. 200m 높이의 상록수를 케이블

로 연결한 다리로, 원시림을 감상하기엔 최적의 장소라고. 부부는 “이렇듯 자연 속 액티비티와 낭만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게 캐나다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곤돌라를 타고 그라우스 산으로 향했다. 이번 허니문의 대미를 장식한 그라우스 산은 해발 1249m로 밴쿠버 주변에서는 가장 높은 산. 언제나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안개가 자욱한 산 정상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다. 꽤나 차가운 공기가 살갗에 와 닿는 데도 부부는 마치 갓 데이트에 나선 연인들처럼 설레는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통나무를 이용한 램블잭소를 함께 감상한 부부는 그라우스 산 전망대 레스토랑에서 캐나다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나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 한번쯤 와보고 싶었다는 선일 씨는 “여행 내내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다.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더 커졌다. 일주일 동안 나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리마인드 허니문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 일상생활에서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힘든 게 사실인데, 이런 기회에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판규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빅토리아와 밴쿠버는 캐나다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다. 노부부가 나란히 손잡고 산책을 하고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이 덧붙였다. “첫 번째 신혼여행 때의 설렘을 느껴요. 여기 캐나다에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주한 캐나다관광청 02-733-7790 www.keepexploring.kr
브리티시컬럼비아관광청 02-777-1977 www.hellobc.co.kr

리마인드 허니문, 그 두 번째 기회!

이 시대의 멋진 중년 부부를 위한 <시니어조선>과 캐나다관광청의 선물은 계속된다. 첫 번째 행사자인 브리티시컬럼비아에 이어 온타리오로 떠날 부부를 찾는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로 떠나는 두 번째 '리마인드 허니문 이벤트' 응모 기간은 7월 5일까지다. 응모 자격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니어조선> 홈페이지(http://senior.chosun.com/even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캐나다관광청(02-733-7790)

OD Musical Company and CJ E&M present

브로드웨이를 뒤집어 놓은 세상에서 가장 웃긴 뮤지컬!



뮤지컬 스팸어랏

Book and Lyrics by Eric Idle Music by John Du Prez & Eric Idle

2013년 5월 21일~9월 1일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프로듀서 신춘수 연출 데이비드 스완 출연 서영주 정준하 이영미 신의정 정상훈 조형균 윤영석 고은성 이훈진 김 호 정철호 공민섭 박경동 윤민우 정성진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협찬 SPAM Loun.G 후원 KIBO 기술보증기금 예매처 인터파크 오픈리뷰 옥션 예스24 두산아트센터 문의 오픈리뷰 1588-5212

A new musical lovingly ripped off from the motion picture "Monty Python and the Holy Grail" from the original screenplay by Graham Chapman, John Cleese, Terry Gilliam, Eric Idle, Terry Jones, Michael Palin

THIS CAR

K9과 떠나는 건축 기행② 사람에 대한 배려가 담길 때 진정한 미학은 완성된다



굵직굵직한 국가 행사장의 대표 격으로 꼽히는 한국가구박물관은 한국적 미감의 집결체라 할 수 있다. 위엄은 있으나 위압감은 주지 않는 한옥, 견결하나 실증 나지 않는 멋을 지닌 전통 목가구. 이러한 한옥과 전통 목가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 조성에 걸린 세월만 17년을 헤아린다. 기아자동차의 프리미엄 세단 K9의 건축 기행 두 번째 장소는 성북동에 위치한 한국가구박물관이다.

한국가구박물관은 한 개인의 소신으로 완성된 공간이다. 정미숙 관장은 196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 것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보고 버려지는 전통 목가구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우리 가구의 쓰임새와 멋을 제대로 느껴려면 그에 걸맞은 한옥에 놓아야 한다고 여겨 1993년 성북동에 터를 마련하고 한국가구박물관을 개회한다. 궁집, 사대부집, 곳간채, 부엌채 등 옛 가옥 10여 채를 옮겨와 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녹록지는 않은 일. 어느덧 17년 가까운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창경궁 일부가 헐릴 때 가저온 기둥과 기와를 살려 다시 지은 궁채,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의 비(妃) 순정효황후가 살던 집을 옮겨 지은 사대부집 등 각기 다른 고유의 가치를 지닌 한옥을 복원한 의미는 남다르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심을 때도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고려

한 덕분에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기품과 독창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선

중국은 형(形), 일본은 색(色)이라면 한국의 미는 단연 선(線)이라 할 수 있다. 발끝이 위로 살짝 올라간 버선코 모양은 우리 고유의 미감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된다. 어디 이쁜이겠는가. 한옥 처마 끝의 선도 마찬가지다. 부드러운 곡선 형태 기와지붕의 모미는 치켜 올라간 처마 끝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가구박물관의 대문이 활짝 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또한 궁궐채의 처마선이다. 하늘로 날아오를 듯 올라간 처마를 가리켜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은 '반작용의 역학적 미'라고 표현한 바 있다. 사실 선은 그저 직선이나 곡선의 형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거기

에는 방향성과 속도가 담겨 있어서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역학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

고급스러우면서도 강인한 스타일의 K9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 또한 선이다. 헤드램프를 라디에이터 그릴보다 높게 두어 고성능 렉서리 세단으로서 강렬한 느낌을 주고, 범퍼와 후드의 구분 라인을 후드 쪽으로 상향 이동하고 후드 부위에 개성 넘치는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볼륨감을 살림으로써 품격이 느껴지는 것. 측면부는 후드에서 앞 범퍼 하단까지 하나의 면으로 이어지는 '원스킨 스타일'의 후드 범퍼를 적용해 역동적이면서 부드러운 실루엣을 완성하고, 펜더 가니쉬에서 뒷문까지 이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직선으로 세련미를 더했다. 선을 통해 차량의 기품과 감성, 성능을 표현하는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는 실내 공간으로도 이어진다. 날개 형상의 크래쉬패드에는 수평 라인



으로 와이드하고 입체적인 디자인을 구현해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고, 센터페시아는 곡선을 써서 모니터, 공조, 오디오를 3단으로 구분해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고정관념을 벗어난 효율성

건축물에서 벽은 공간과 공간을 구분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그러나 한옥은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비법은 문을 활용한 벽에 있다. 칸칸이 문을 열면 한 공간으로의 공간 확장이 가능한 것. 즉 문을 열면 공간이 사방으로 트이지만 닫으면 각각의 공간이 차단, 고립되는 것이다. 서양식 건물과 달리 넓은 홀이나 로비를 갖추지 않은 한옥으로 지은 한국가구박물관에서 G20 정상 배우자들의 오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들문을 활용한 공간 확장 기능에 따른 것이다.

한옥의 이런 효율성은 K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프리미엄 세단은 쇼퍼드리븐카(운전기사를 두고 타는 차)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K9은 뒷좌석을 중시하는 고급차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주행감을 즐기는 운전자도 만족시키는 혁신을 꾀했다.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과 핸들링, 가속감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존 고급 세단과 차별화한 것. 권위보다 효율성을 앞세운 탓에 회사 경영자는 무게감 있는 차를 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이들에게 K9은 낯설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말에 속도감과 주행감을 즐기면서 평일에 쌓인 업무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CEO들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대형 세단의 운전석 강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안락함과 품격을 상징하는 '뒷좌석' 중심에서 운전자의 주행 감각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가치는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

한옥의 편안함은 어디에서 연유할까. 그것은 바로 사용자, 즉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맞춘 공간 구성에 있다. 전통 목가구는 비교적 작은 크기에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넓은 공간에 덩그러니 놓였을 때 그 미감이 제대로 읽히지 않는다. 해외여행 중 미술관을 찾았다가 한국관이라는 이름 아래 몇 점의 목가구가 놓인 초라한 모습에 실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한국가구박물관 정미숙 관장이 오래도록 수집한 전통 목가구 전시 공간을 위해 한옥을 지은 까닭도 이 때문이다. 전통 목가구는 한옥에서 좌식 생활을 하는 이들을 위해 최적화된 가구다. 사방탁자



의 높이나 길이는 한옥 창문의 크기에 따라 맞추었기에 그에 맞는 공간에 놓였을 때 비로소 디자인이 완성되는 것이다. 한국가구박물관 내 자리한 사대부집 방 안에 앉으면 이를 체험할 수 있다. 방에 놓인 간결한 가구는 공간의 크기와 비례에 딱 들어맞을 뿐 아니라 창틀은 앉아서 팔을 괴기에 알맞은 높이다. 창을 통해 내다보이는 마당의 담 높이 또한 방에 앉아 담 너머 경치를 완상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했기에 그 공간 속에 있으면 편안한 것이 당연할 터.

마찬가지로 K9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운전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장치를 탑재했다. 국내 최초로 장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첨단 기능이 망라되어 최고 자동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6만5000색의 그래픽을 써서 입체감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속도, 내비게이션,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상황, 후방 경보 시스템, 차선이탈 경보장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보여지는 위치를 조절하고, 텍스트의 색상도 선택할 수 있다.

K9의 후측방 경보 시스템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고등과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리며, 필요하다면 해당 방향의 운전석 시트까지 진동시킨다. 또한 기본적인 사각지대 감시 기능(BSA, Blind Spot Assist) 외에 차선 변경 지원 기능(LCA, Lane Change Assist)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선 변경 지원 기능은 차량 뒷부분에 장착된 두 개의 레이더가 후측방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까지 감지해 알려주므로 사이드미러를 통한 시각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운전자의 차선 변경 판단에 도움을 준다. 이 외에 변속기와 레버를 전자통신 제어로 조정하는 전자식 변속 레버, 차량 방향과 속도에 따라 각도 및 밝기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풀LED 헤드램프, 9.2인치 대형 화면에 통합 조작키가 적용된 DIS 내비게이션, 주차 시 차량의 앞 뒤, 좌우를 보여주는 360도 어라운드 뷰시스템 등 첨단 기능으로 편의성이 뛰어나다.



1, 4 기아자동차 프리미엄 세단 K9의 건축 기행 두 번째 장소인 한국가구박물관. 2 자동차 외관은 차량의 기품과 감성, 성능까지 짐작케 한다. 지조와 절개를 지닌 선비의 당당한 뒷모습을 담은 K9의 루테. 3 부엌채 외관. 세로로 긴 형태의 광창에 맞춰 시각형 돌 장식을 매치했다. 5 위엄이 느껴지는 궁채. 하늘을 향한 처마 끝선의 미감이 압권이다.

한국가구박물관(관장 정미숙)은 전통 목가구를 재료 · 종류별로 전시하는 전문 박물관이다. 궁집, 사대부집, 곳간채와 부엌채 등 옛 가옥 10여 채를 옮겨와 그곳에 안방 · 사랑방 · 건넌방 가구 및 찬장 · 뒤풀 · 탁자 · 소반 같은 부엌 가구를 전시함으로써 우리 가구의 쓰임새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형태가 다른 다양한 소반,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가벼운 옹동나무로 만든 책함, 원목의 질감을 살려 만든 여러 가구 등 박물관이 소장한 2000여 점의 전통 가구를 통해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은은하게 묻어나는 한국적 미감을 느낄 수 있다. 예약을 통한 가이드 투어도 진행한다. 일요일과 월요일 휴관. 문의 02-745-0181

THIS MAN

나는 식품공학자이자 환경공학자입니다. 동시에 가수 겸 작곡가이기도 하죠.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총 열 장 이상의 음반을 냈습니다. 대표곡으로는 '한강은 흐른다', '김치 된장 청국장', '내 고향 해주나루', '어머니 천년초' 등이 있는데, 이들 환경과 음식에 관한 노래 중 몇 곡은 초·중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어요. 혹자는 내 노래하는 목소리를 듣고 기대 이상(?)의 가창력에 놀라 대체 노래를 얼마나 한 것이냐 묻곤 하는데, 글썽요. 딱히 노래가 생활의 몇 %를 차지한다고 말할 순 없죠. 내게 노래는 그저 일상인 것 같아요.

천년초 사랑 지난 30여 년 동안 나는 항염·항암·항노화 효능을 지닌 식물 항산화제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특히 항산화제 함량이 높은 천년초에 주목하고 있죠. 영하 20도의 맹추위에서도 견딜 만큼 강한 천년초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적의 식물이라 할 수 있어요. 보통 식물보다 50배 이상의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를 이용해 음료나 과자 등 다양한 천년초 식품을 개발합니다.

최근에는 천년초 성분을 넣은 짜장면이나 탕수육 같은 중화요리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면발이 쫄깃하고 맛이 좋을 뿐 아니라 밀가루로 인한 알레르기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천년초 막걸리는 또 어떨까요. 깔끔한 맛에 숙취가 거의 없어, 가히 신의 술이라 할 만하죠(웃음). 현재 내가 머무르는 해주산성 부근에는 천년초 센터가 있어요. 천년초 중화요리와 막걸리를 맛볼 수 있고, 그 건물 위층에는 천년초박물관을 준비 중입니다. 많이들 놀러 오세요. 바로 그 앞 천년초체험농장(www.1000ylc.com)에도 한번 들려주시고요.

도시농부 나는 한강 해주나루 인근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지금도 그곳에서 텃밭을 가꾸죠. 집은 고양시 행신동인데, 아침 5시면 발일을 하러 나갑니다. 천년초뿐 아니라 내가 평소 즐겨 먹는 대부분의 채소가 여기 밭에서 자라요. 여러 분에게도 권합니다. 작은 땅을 얻어 텃밭농사를 지어보세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요? 찾으면 방법은 다 있어요. 옥상이나 베란다, 그것도 어려우면 화분에라도 심으면 되죠. 마트에서 파는 채소는 온전한 맛도, 향기도 없어요. 하우스에서 나온 것이라 벌레도 안 먹는 거죠. 갯잎만 봐도 특유의 알싸한 향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 사 먹는 채소에 무슨 항염·항암·항노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믿을 음식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몸에 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음식은 환경과 가장 밀접해요. 지구생태계 자체가 먹이사슬이니까. 음식의 오염은 세상 모든 것의 오염과 마찬가지로, 음식은 피도록 자연 상태의 날것 그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식은 매우 이로운 것이죠.

바그너 할아버지 본격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독일 유학 시절 바그너라는 할아버지를 만나면서부터예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바그너 할아버지는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나를 많이 도와주셨죠. 그분과 1년을 함께 살았어요. 여든다섯 살의 할아버지는 아침에 냉수마찰을 하고 낮이 되면 명상과 기공체조를 하셨어요. 채식주의자이기도 했고요. 말하자면 동양의 선비처럼 사시던 분이예요. 노자와 장자의 가르침을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동양의 전통 자연철학에 대해 그때 눈을 뜨게 된 셈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통 자연철학을 회복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지금은 서양의 기계문명에 경도돼버린 상태나

다름없죠. 결과적으로 '동방무례대국'이 되었어요. 자연철학을 되살려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것. 그러면 우리 생활 자체가 바뀔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을 지키는 일과도 연관하죠.

가수가 됐다면? 예와악을 중시한 공자는 <시경(詩經)>이란 노래집을 냈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노래로 전한 것이죠. 일종의 음악운동인 셈입니다. 공자처럼 나도 노래로 우리의 전통 자연철학을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워낙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타는 어렸을 적부터 쳤어요. 열세 살 무렵인가, 30원짜리 줄도 없는 기타를 사서 가지고 다닌 기억이 있네요. 주특기인 입피라는 해주나루 어부였던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고요.

대학에 다니던 1978년에는 자작곡으로 대학가요제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약 760개 팀이 나왔는데, 거기서 3~4번의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까지 올랐죠. 하지만 본선 무대엔 서지 못했어요. 듀엣을 한 친구에게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때 우리 바로 옆 번호가 심수봉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으로 나온 심수봉도 수상은 못 했죠. 만약 무대에 올라 상도 타고, 그래서 가수가 됐다면?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얼마나 좋아요. 학자로서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나는 만족합니다.

속옷 살 돈까지 아껴 2001년 즈음 첫 무대에 서게 됐어요. 언젠가 한 시인의 초청으로 여름시인학교에 참여했는데, 그때 거기 무대에서 팔과 환경 관련 노래를 한 곡 불렀어요. 그 모습을 본 한 외국 시인이 꼭 음반을 내라고 당부하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속옷 살 돈까지 아껴 결국 음반을 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생이던 딸과 함께 부른 '지구를 위하여'가 1집에 실렸죠. 환경 콘서트 등 각종 환경 관련 행사에 초청도 많이 받았어요. 반응이 좋아 전국 순회공연도 다녀다녔니까요.

이후 발표한 음반은 총 열 장이 넘어요. 음반 당 12곡씩 들어갔으니 그간 얼마나 많은 곡을 만들고 불렀는지... 그 과정에서 많은 분이 도와주셨어요. 어떤 분은 음반을 내라고 500만 원 현금을 손에 쥐여주시기도 했죠. 노래에 감동했다고 하시면서요. 그분을 다시 만나면 꼭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이후로 한 번도 뵈지 못했네요.

영원한 자유인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사치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같은 죄다 귀찮은 얘기들뿐이잖아요. 그러니 어려워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뻔한 것이지만 생활의 사소한 부분부터 개선하는 것이죠. 텃밭을 가꾸고 에너지, 물을 절약하는 것부터요. 지금 이대로 가다간 너무 위험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 모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죠. 나는 큰 욕심이 없어요. 돈도, 권력도 탐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 먹고 즐겁게 살고 싶은 것뿐입니다. 이런 나는 영원한 자유인이죠.

이기영(56) 교수는 고려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공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보건대 생리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호서대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초록교육연대 상임대표, 천안야생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으로 노래와 글, 방송활동을 통해 환경운동과 전통자연철학되살리기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천주교환경상, 환경의날 유공자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노래하는 환경교실>, <음식이 풀이다>, <음식이 지구다> 등이 있다.

FOOD

고기 먹고 힘내자!

더위에 지친 여름이면,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쓴다'는 옛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고기로 만든 보양식이 많지만, 지친 입맛을 깨우기엔 소고기 수육만 한 게 없다.

하나 평범한 수육은 이제 그만!

강남 일대에서 맛볼 만한 몇 가지 특별한 수육 요리.

담다어복쟁반 & 담다샐러드

놀부맑은설렁탕담다

'놀부맑은설렁탕담다'에는 다양한 수육 요리가 준비하다. 그중 베스트샐러는 단연 담다어복쟁반. 늦장반에 수육과 전, 채소가 푸짐하게 어우러졌다. 수육의 주재료는 품이 좋은 업진살(우삼겹)과 차돌양지, 뽕살. 살코기 부위만을 엄선해 씹는 맛이 연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배추, 부추, 단호박, 버섯, 그리고 새우전, 육전, 동그랑땡까지 곁들여 먹는 맛을 더했다. 쟁반 아래 자작하게 깔린 육수는 순수 고기만을 우려낸 것으로 색이 맑다. 고단백의 소고기과 함께 비타민을 보충하고 싶다면 각종 채소를 버무린 담다샐러드도 좋은 선택이다. 이듬하여 샐러드 수육, 업진살과 머릿고기를 양상추, 치커리, 겨지 잎, 파프리카, 베이비채소 등과 무친 것. 은은한 향의 올리브오일 소스로 드레싱 해 식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 있다. 이 밖에 놀부맑은설렁탕담다에서는 퓨전화한 다채로운 수육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볶음수육, 냉채수육, 낙지수육 등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담다어복쟁반(3~4인분) 3만2000원, 담다샐러드 1만원. 놀부맑은설렁탕담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5 문의 02-558-5717



모듬수육전골

이화수전통육개장

수육이라고 하면 보통 접시나 돌판에 나오는 것을 떠올리게 마련. 하지만 '이화수전통육개장'의 모듬수육전골은 영양 만점 소고기와 사골을 고아 만든 육수를 쓴다. 양지와 우족, 소꼬리, 도가니 등 몸에 좋다는 4가지 부위를 고루 맛볼 수 있는데, 이들 고기를 삶은 물과 사골을 5시간 이상 고아낸 물을 더해 육수를 만든 것. 덕분에 육수는 색이 보얗고 맛이 진하다. 대파와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 다소 킬킬한 편.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가족과 함께 찾아도 좋지만 안주 삼아 고향 친구와 약속 한잔 기울이기에 안성맞춤. 고기뿐 아니라 양배추, 미나리, 호박, 버섯, 당근, 대추 등 함께 놓인 채소 양도 푸짐하다. 수육을 다 먹고 나면 남은 육수에 밥도 뭍어먹을 수 있다. 참고로 모듬수육전골 레시피는 외식업 20년 경력의 손국대 장점이 직접 개발한 것. 그 누구보다 수육을 즐겨왔다고 자부하는 만큼 솜씨를 믿어볼 만하다. 아울러 이화수전통육개장에서는 양지고기 등뼈 들어간 전통 방식의 육개장도 만날 수 있다. 수육(2~3인분) 2만8000원. 육개장 8000원. 이화수전통육개장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31 문의 02-501-7977



한우모듬수육

감자꽃

수육도 '약선(藥膳)'으로 즐기자. '감자꽃'의 한우모듬수육은 말 그대로 약이 되는 요리다. 강원도 중가 큰집의 오래된 요리법을 고수하고 있는 감자꽃 남해영 대표는 수육을 삶을 때 하수오나 황기, 헛개나무 등의 한약재를 사용한다. 잡내를 없애고 건강에도 이로우니 일석이조. 특히 그가 주로 사용하는 하수오는 기와 혈을 보하는 약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하수오 속 활성성분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수오를 먹으면 흰머리가 검어지는 등 늙지 않는다는 옛 설화가 아주 엉터리는 아닌 모양이다. 감자꽃 한우모듬수육은 아롱사태와 도가니를 사용해 식감이 쫄깃하고 부드러다. 곁들여 나오는 명이나물이나 숙주나물에 싸서 먹으면 새콤달콤한 수육 맛을 느낄 수 있다. 강원도식 맛깔스러운 전과 장떡은 덩. 그래도 출출하다면 감자꽃의 별미인 덕덕비빔밥이나 낙지한마리비빔밥을 권한다. 기존의 비빔밥과는 전혀 다른 '샐러드 형식'의 독특한 비빔밥이다. 한우모듬수육 4만원(3~4인분), 비빔밥 8000원. 감자꽃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7-1 문의 02-532-5502

노래하는 도시농부, 그리고 영원한 자유인 - 호서대 식품공학과 이기영 교수



1 그레이 컬러의 스커어 프레임 선글라스.
가격 4만 5천 **달러**도 **페라리**도 9.2 수채화
느낌의 **아르데** 프린트 코튼 셔츠, 33만
원 **폴 스미스** 블루와 레드 컬러의
강경테 초크, 15만6000원 **마.**
BAGGIES 비스프라스스코 **바데**
4 차분한 블루 컬러의 플라워 프린트
셔츠에, 43만 원 **비비**, 화이트 컬러의
빅 사이즈의 벨트, 52만 원 **고아드**
6 다크 브라운 컬러의 안경줄을 엮은
워킹 슬림은, 87만5000원 예. **테스토니**
7 덧붙여 컬러 매치인 아너로 블랙
밴드 워치, 59만7000원 **보스** 비
컬러리얼스미스 8 7번은 셔츠 위에
갈라티아시탈리아 9 면을 연출할 수
있는 플라워 프린트 매스터, 57만 원
사르토리야리 비 **바테르** 9 소스주
소재의 여권지갑, 7만 원대, 워킹
다테일의 소가죽 팔찌, 62만8000원
일 비즈매

ENTREPRISE



당신의 품격을 위한 K9 멤버십의 특별한 선물

세상에 좋은 자동차는 많다. 하지만 고객의 품격까지 세심하게 지켜내는 차는 드물다.
최근 기아자동차는 프리미엄 세단 K9 고객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

No.1 K9과 함께하는 유리 바슈메트 & 마스터클래스 음악회

5월 29일 저녁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는 감미롭고 우아한 비올라 선율이 가득 울려 퍼졌다. 객석은 한동안 숨을 죽였고,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는 알레그로 모데라토에서 알레그레토에 이르기까지 유려하게 이어졌다. 무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유리 바슈메트. 유리 바슈메트는 '비올라 발생 이래 최고의 연주자'라는 수식이 늘 따라붙는 러시아의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모스크바 국제 비올라 콩쿠르의 창립자이자 심사위원장,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활동 중인 그는 국내에도 많은 팬을 거느린 정상급 스타다. 자신이 이끄는 솔리스트 앙상블 '모스크바 솔로이스츠'와 함께 한국 무대에 오른 것은 약 2년 만의 일이다. 이번 공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인 것은 단지 가정의 귀환 때문만은 아니다. 객석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바슈메트와 만나기 위해 자리를 메운 200여 명의 관객 역시 특별한 손님인기 마찬가지. 이들은 모두 기아차 K9의 멤버십 회원이다. 말하자면 이 공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기아차가 준비한 색다른 선물인 셈. 기아차는 지난 5월 8일부터 22일 까지 홈페이지(www.kia.com/kr) 등을 통해 공연을 관람할 고객을 모집했고,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쌍을



초청했다. 그렇게 'K9과 함께하는 유리 바슈메트 & 모스크바 솔로이스츠'는 막을 올렸다. 더욱이 기아차는 이번 공연과 함께 음악을 전공하는 K9 고객 자녀를 위해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수석 단원에게 직접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 기회도 제공했다.

유리 바슈메트가 꾸민 세계 최정상급 음악회

'K9과 함께하는 유리 바슈메트 & 모스크바 솔로이스츠'에는 고객에게 품격 높은 예술을 선보이고자 한 기아차의 노력이 담겨 있다. 유리 바슈메트와 그의 앙상블 자체가 세

계 최정상급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연주하는 화려한 레퍼토리를 통해서도 그 사실은 고스란히 확인된다. 이번 공연에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를 비롯해 바흐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WV1052', 파가니니의 '비올라 협주곡 A단조',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등 바로크와 낭만주의 곡들이 두루 배치됐다. 이 레퍼토리는 바슈메트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데 더없이 좋은 곡들이라 할 만하다. 일본의 음악평론가 아오사와 다카기라의 말대로 "깊은 명상에 빠져들게 하는 소리, 천차고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는 판타지적 표현, 바다처럼 넓은 포용력, 때로는 생명 활동을 멈춘 듯한 비정한 사운드, 섬세함과 세련됨이 극대화되어 감미롭게 속삭이는 듯한 유희" 등 바슈메트 특유의 방대한 표현력이 무대를 장악했다. 또한 이는 유리 바슈메트의 연주자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지휘자 면모까지 두루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한다. 바슈메트는 1985년 이래 지휘를 겸하고 있으며, 과감한 현대곡 해석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여기에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과 함께 모차르트 협주곡 최고연주상, 콩쿠르 위촉 작품

최고연주상까지 휩쓸며 한국 국적으로 피아노 부문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젊은 피아니스트 손열음까지 가세했다. 바흐의 '피아노 협주곡 1번 BWV1052'를 연주, 모스크바 솔로이스츠와의 완벽한 협연을 선보이며 객석의 열띤 호응을 이끌었다.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끝으로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객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외침이 쏟아졌다. 마침내 세 번째 앙코르 무대를 끝으로 공연은 막을 내렸다. 공연을 관람한 K9 고객들은 하나같이 이번 공연의 수준에 큰 만족을 표했다. 지난 3월부터 K9을 타고 있다는 용인의 정도영 씨는 "양질의 공연이었다"며 "아내가 클래식을 매우 좋아하는데, 음악을 함께 감상하며 부부간의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2월 K9의 오너드라이버로 이름을 올린 후 생애 처음으로 기아차 패밀리가 된 권민도 씨 역시 "바쁜 일상 속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공연을 보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고객의 품위까지 생각하는 기아차의 배려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성과 열정이 깃든 마스터클래스

기아차가 마련한 선물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공연에 앞선 지난 5월 25일 청담CGV 프라이빗 시네마에서는 음악을 전공하는 K9 고객 자녀를 위한 마스터클래스가 진행됐다. 기아차는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K9 고객 자녀 혹은 고객 지인의 자녀 가운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전공하

는 7명의 초·중·고교생을 선발해 'K9 고객 클래식 꿈나무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의 값진 기회를 안겼다. 이는 어느 기업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색다른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아차가 마련한 케이터링 서비스를 받으며 가족과 즐거운 점심을 한 학생들은, 오후 1시부터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수석 단원으로부터 약 4시간 동안 차례대로 지도를 받았다. 바이올린은 안드레이 포스크롭코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악장이, 비올라와 첼로는 각각 로만 발라쇼프와 알렉세이 나이테노프 수석 단원이 지도했다. 지도에 나선 단원들은 교정이 필요한 구절에 대한 반복 연주를 지시하거나 무대로 나가 직접 자세를 교정하는 등 세심한 가르침을 베풀었다. 레슨이 끝난 후 수료 학생들은 마스터클래스 수료증 수여와 함께 단원들과의 기념촬영 시간을 갖기도 했다. 에두아르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을 연주한 함안고 홍혜민 양은 "이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멀리 경남 함안에서 하루 전날 서울에 왔다. 아버지가 K9 멤버십 회원인데, 지인에게서 이번 행사 소식을 전해 듣고 참석하게 됐다"며 "레슨을 받는 시간 내내 무척 떨렸지만, 열정 넘치는 마스터들에게 많이 배운 것 같다.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마스터클래스 행사 소식을 접하고 딸의 참석을 독려한 오기원 씨는 "아이가 서울에오고에서 비올라를 전공하고 있다. 자연히 이런 행사에 관심이 많다. 마스터클래스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인데, 아이의 연주 모습을 지켜보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외국 유명 마스터에게 레슨 받을 기회는 드문데, 이런 행사가 아이에게나 부모인 저에게나 기분 전환이 된다. 기아차 타길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다"고 전했다.

K9 음악회와 마스터클래스 초청 행사를 주관한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고객의 품격을 위해 준비한, 어느 기업과는 차별화된 기아차만의 선물"이라며 "앞으로 마스터클래스 같은 행사를 브랜드화하는 등 K9 고객들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 3, 6
'K9 고객 클래식 꿈나무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에 참가한 K9 고객 자녀들은 모스크바 솔로이스츠 수석 단원에게 약 4시간 동안 레슨을 받았다. 1. 레슨이 끝난 후에는 마스터클래스 수료증이 수여됐다. 5. 당일 점심에는 고객 가족들이 모두 모여 기아차가 마련한 케이터링을 즐기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1
기아차는 'K9과 함께하는 유리 바슈메트 & 모스크바 솔로이스츠'에 총 100쌍의 고객을 초청했다. 양질의 공연은 물론, VIP 고객을 위한 별도 부스를 마련해 프로그램 복과 음료권, 주차권을 제공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No. 2 한국여자오픈 사전 고객 초청 라운딩 ‘K9 VIP 인비테이션’



AM 07:00~08:00
참가자들이 속속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클럽하우스에 도착하자,
입구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전 도우미들이 안내를 도왔다.
참가자들의 차량은 발렛파킹 후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자동차
점검센터에서 차량 케어 및 세차
서비스를 받았다.

기아차가 K9 고객들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 이어 스포츠 분야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여자오픈 골프대회가 열리기 전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에서 사전 라운드를 펼칠 수 있는 'K9 VIP 인비테이션' 행사를 마련한 것. 이벤트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총 140여 명의 K9 고객들은 지난 6월 17일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을 찾아 오전 8시 초찬을 시작으로 기아차가 준비한 당일 일정을 '폴코스'로 소화했다. 기아차는 조별 골프대회를 비롯해 한국여자오픈 홍보대사인 정일미·김미현 프로의 원포인트 레슨, 뮤지컬 배우 배해선의 갈라디너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하고 발렛파킹, 차량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참가자들은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울에 거주하는 K9 오토 동교 씨는 “큰 경기가 치러질 필드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어 좋았다”며 “오늘 현장에서 프로에게 퍼터 방법을 다시 배워서인지 최고의 성적을 냈다. 기쁘다”고 말했다. 박인서 씨 역시 “함께 경기한 K9 오토들과 초면임에도 돈독한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자주 치러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PM 04:00~05:00
행사 본대회 사상은 개인 우승, 개인 준우승, 팀 베스트 우승, 팀 베스트 준우승 등 4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개인 우승의 영광은 총 85타(핸디 15.6, 넷트 69.4)를 기록한 구효진 씨에게 돌아갔다. 그는 한국여자오픈에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트로피를 거머쥔 것은 물론, 타이틀리스트 아이언 8세트와 타이틀리스트퍼포먼스센터에서의 피팅 기회를 얻었다. 한편 개인 준우승에게는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와 피팅 기회가, 팀 베스트 우승·팀 베스트 준우승에게는 각각 파주 스마트 KU 라운딩권과 르랜드호텔 숙박권이 주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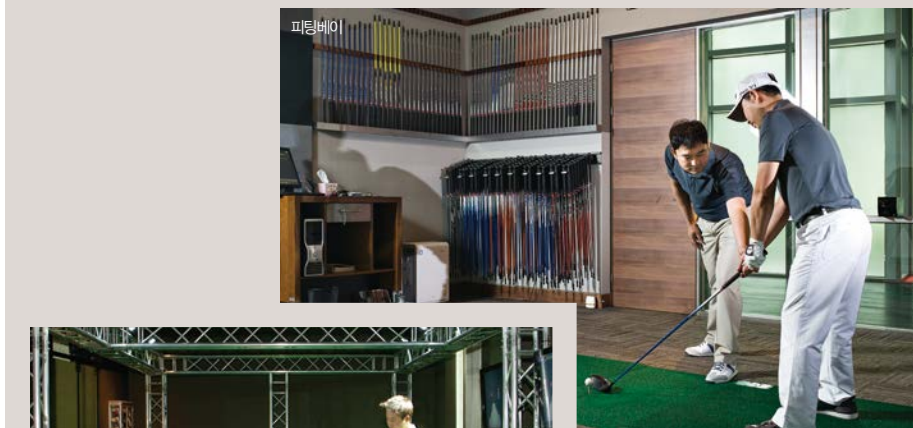
AM 08:30~09:30
현역 시절 아마추어 선수와 프로 선수 신분으로 모두 한국여자오픈 우승을 기록한 정일미·김미현 프로가 진행한 골프 클리닉. 정일미 프로는 드라이브샷장에서, 김미현 프로는 숏게임장에서 레슨을 진행했다. 한국 여자골프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두 선수의 등장에 참가자들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등 빈가움을 표시했다. 정 프로는 참가자들의 뛰어난 골프 실력을 칭찬하기도 했다. “K9 타시는 분들, 왜 이렇게 모두 골프를 잘 치시는 거죠?”



AM 10:00~PM 03:00
1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조별로 라운딩을 즐겼다. 4명씩 총 35개의 조가 짜여졌다. 몇 곳의 특정 홀에서는 라운딩 이벤트가 마련됐다. 특히 인기를 끈 것은 K9 홀. 페어웨이 중앙에 별도의 K9존을 구성, 존 안에 볼이 안착할 경우 경품을 지급했다. 이 밖에 드라이버 거리를 측정해 롱기스트, 니어리스트를 선발,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및 퍼터를 수여했다. 홀인원을 할 경우 기아차 Ray가 경품으로 주어졌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아차는 파라솔을 이용한 임시 그늘집과 간식 카트를 추가로 운영하기도 했다.



PM 05:00~06:00
저녁부터는 리셉션 및 공식 만찬이 이뤄졌다. 만찬에서는 뮤지컬 배우 배해선이 갈라디너쇼를 진행, 'Fly to the moon' '나 가져온' 등의 유명곡을 연달아 선보이며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 세계 골퍼들의 로망, 타이틀리스트

이번 'K9 VIP 인비테이션' 행사에서 눈길을 끈 한 가지는 바로 타이틀리스트의 피팅 밴이다. 행사에 참가한 K9 고객들에게 밴에서의 피팅 기회를 제공한 것은 물론, 아이언세트·드라이버·퍼터 등을 시상품으로 후원했다. 수상자들은 성남시 야탑에 위치한 타이틀리스트퍼포먼스센터에서 직접 피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아울러 타이틀리스트는 지난 6월 20~23일 치러진 '기아자동차 제27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용품 관련 독점 스폰서로도 활약했다. 타이틀리스트 측은 이번 후원에 대해 “그간 특정 기업과의 코마케팅(co-marketing)을 자체해왔지만 기아차의 K9 고객이 우리 타이틀리스트의 타깃층과 잘 맞다고 판단했다. 대중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골프용품업체 타이틀리스트는 골프를 치는 거의 모든 이들의 로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991㎡ 규모의 타이틀리스트퍼포먼스센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사이드에 위치한 오렌사이드테스트센터의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그대로 실내 환경에 맞도록 개발한 곳. 센터는 드라이버, 롱게임, 아이언, 웨지 등 14개 클럽과 스윙을 분석하는 총 3개의 피팅베이와 퍼터 피팅이 이루어지는 스카티 카메론 퍼터 스튜디오, 타이틀리스트의 볼과 클럽 등을 볼 수 있는 제품전시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미국 타이틀리스트 본사로부터 장기간 교육을 받은 클럽 피터가 상주, 골퍼들의 퍼포먼스와 스코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피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이틀리스트 R&D센터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타이틀리스트만의 '퍼포먼스 피팅'을 통해 골퍼 개개인의 신체와 스윙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클럽과 효율적인 스윙을 제안해주는 것. 스윙 분석 시스템의 경우, 센서 방식을 통한 기존의 평면적인 분석 시스템과 달리 총 4대의 카메라를 이용한 3D 입체 분석 방식의 스윙 분석 시스템을 적용했다. 타이틀리스트퍼포먼스센터는 100%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문의02-3014-6100

FINANCE

생애 재무설계,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은퇴 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기에 급급해 미래 재무 설계는 제쳐두고 있지 않은가. 퇴직 이후 20~30년,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영위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은퇴 전략을 세워야 한다.

행복한 생애 설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금전적인 요소다.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재무 설계가 불가피한 이유다. 노후생활 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부부가 함께 생존해 있을 때의 생활비고, 둘째는 은퇴 후 들어가는 취미·여가 활동비다. 셋째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사망한 후 홀로 사는 기간의 생활비고, 넷째는 남편과 아내가 각각 사망하는 시점에 사용하는 의료비다. 노후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은퇴 직전 소득의 60~70%로 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노후에 드는 평균 월 생활비는 200만 원 정도. 물론 사람마다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전 생활수준, 건강상태, 거주지역, 여가활동 등에 따라 차이는 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두세 가지 만성질환을 앓게 된다.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직전에 드는 의료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사망 직전에 지병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사망 관련 의료비'라고 하는데, 이는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20~30%에 달한다고 한다.

은퇴자금 얼마면 될까

현재 남편 40세, 아내 38세인 부부가 남편이 60세에 은퇴할 경우, 필요한 노후자금은 얼마나 될까. 남편의 예상 사망 시점 85세, 사별 후 아내 홀로 생존기간 10년, 은퇴 후 월 생활

비 200만 원(여가생활비 포함), 물가상승률 3%, 노후자산 운용수익률 4%라는 전제 조건하에 은퇴 생활비를 따져보면 7억~12억(현재 가치 2억~4억 원)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다. 국민연금을 20~30년간 지속해서 부으면 노후에 월 60만~12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간에는 준비해야 할 노후자금에 큰 차이가 생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운데 약 30%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앞서 노후 생활비 예상치 7억 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이고, 12억 원은 미가입자의 경우다. 따라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은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노후를 100% 보장해주진 않는다. 예상 필요 비용 7억 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연 4~5%의 금리를 주는 은행 예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과 펀드, 부동산, 보험 상품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기대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투자를 위한 대안은 펀드

대표적인 투자자산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꼽을 수 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노령 인구의 증가로 주택 가격은 지금까지의

불패 신화를 잊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에 근접하는 2025년을 기점으로 주택시장이 큰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주식에 주목할 만하다. 물론 국내 주식시장도 주력 구매 인구의 감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펀드는 국내 주식뿐 아니라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외국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자 통로다. 국내 주식이 노령 인구의 증가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된다. 펀드에 투자하기 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명확한 투자 목적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지, 주택이나 노후자금 마련 등 중장기적 목표를 갖고 투자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라면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대수익률을 책정한 후 분산 투자를 통해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노후를 위해 펀드 투자에 나선다면 은퇴 시점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 월별 투자 가능 한도액은 얼마인지, 최종적으로 투자 후 원리금 목표액은 얼마인지를 정해야 한다. 기간이 길수록 위험자산의 위험도는 낮아진다. 1년을 투자한다면 주식은 위험한 자산이 될 수 있지만 10년을 투자한다면 모든 자금을 주식펀드에 투자해도 무방하다. 위험자산의 보유 기간이 길수록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변동성은 줄어들고, 투자 수익률도 시장의 장기 평균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은퇴 설계의 4가지 요소》



※일반적으로 여성의 수명이 길다는 통계 수치에 따라 아내 홀로 생존기간으로 가정

HEALTH

日光 흑색점 조심하세요!

여름철이면 유독 피부를 괴롭히는 자외선. 방심했다간 흑색점이나 기미, 검버섯 등 각종 색소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

Tip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자외선 A, B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광범위 차단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자외선 A는 자외선 B에 비해 일광 화상은 덜 일으키지만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자외선 B의 10~100배로 피부에 더욱 깊숙이 침투한다. 그러므로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자외선 A와 B 모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 겔면에 표기된 SPF(Sun Protection Factor)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자수로, 숫자가 클수록 일광 화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PA(Protection grade of UVA)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에서 +++로 표시되어 있다. 반드시 SPF와 PA,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는 적정량을 잘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겔면에 표시된 정도의 효과를 내려면 외출하기 30분쯤 전 귀와 목을 포함한 얼굴에 적어도 1/2 티스푼을 골고루 펴 발라야 한다. 특히 야외 활동 시에는 물과 땀에 의해 자외선 차단제가 지워지므로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

얼마 전 50대 고미남 씨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뺨 한쪽에 짙은 갈색점 하나가 생긴 것. '점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만나는 이들과 "웬 점이야?"고 물어오는 것이, 여간 거슬리지 않았다. 난데없이 생겨난 점 때문에 그간 지켜온 '동안(童顔)' 타이틀도 반납해야 했다. 참다못해 병원 피부과를 찾은 고 씨는 그것의 정체가 다름 아닌 흑색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흑색점은 흔히 '혹자'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갈색 또는 검은색 둥근 점으로 크기는 보통 직경 1cm 이하다. 피부의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형태, 색,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고 씨의 경우는 노인성 흑색점(일광 흑색점)으로, 햇빛에 오래 노출된 탓에 생겨난 것. 요즘 같은 여름철은 그야말로 흑색점의 전성기인 셈이다. 이는 대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뾰족한 치료법은 없을까. 노인성 흑색점을 비롯해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피부 색소질환의 이모저모에 대해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피부과 김명신 교수에게 물었다.

Q 자외선에 노출되면 왜 피부 색소질환이 생기는가 피부의 색깔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는 '멜라닌 세포'라는 특수한 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이것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는다. 그러면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전달되는 과정이 촉진되어 색소성 병변이 발생하고 그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다.

Q 중·장년층에 가장 밀접한 피부 색소질환은 무엇인가 노인성 흑색점이라 할 수 있다. 자외선에 오랜 기간 노출된 부위에 불규칙한 모양으로 갈색 혹은 검은색 반점이 산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50대 이후 얼굴과 손등에 나타난다. 자외선 강도가 센 여름철에는 기존의 병변이 더 진해질 수 있고, 새로운 병변이 생길 수도 있다. 40대 이상이라면, 이미 어린 시절부터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Q 여름철 색소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손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다. 그리고 모자나 긴 소매 옷 등을 착용해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매일 발라야 하는 필수품이나 마찬가지로, 자외선 노출에 따른 여러 피부 질환, 즉 색소질환이나 피부 노화 및 피부암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중에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신에게 잘 맞

는 제품을 찾아서 매일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름철에는 물론이고 날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습관화하자.

Q 시중에 나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얼마나 도움이 되나 최근 색소질환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여러 기능성 화장품이 선을 보인 것으로 안다. 좋은 화장품이 많이 출시되어 사용자들의 선택 폭도 넓어졌고,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화장품이다. 즉, 치료 보조제로서의 역할이지 단독으로 색소질환을 치료하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Q 노인성 흑색점을 비롯한 색소질환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색소질환의 종류와 발병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백 기능이 있는 국소 치료제를 도포하는 것과 레이저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노인성 흑색점이나 검버섯의 경우 1~2회의 레이저 치료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기미는 개인차가 심하지만 복합 요법으로 꾸준히 치료하면 어느 정도 제거된다.

Q 색소질환을 방치할 경우 특별한 부작용이 있나 대부분은 미용적인 문제다. 요즘은 중장년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하지만 노인성 흑색점이나 검버섯으로 알고 지나치는 것들 중에는 피부암이나 피부암 전구 단계인 광선 각화증인 경우도 있으므로 피부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자외선에 늙는 피부 피부 노화는 나이를 먹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자외선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쬔 경우 노화가 더욱 가속화된다. 이를 '광노화'라고 하는데 광노화된 피부는 두께가 얇아지고, 크고 작은 주름이 생긴다. 피부결이 거칠어지며 탄력을 잃어 처지기도 한다. 또한 모세혈관 확장이나 색소 침착 등으로 피부 색조도 불균일하게 변한다.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는 노출 시간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자외선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방법이다. 이미 광노화가 진행된 피부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한 보습과 여러 가지 피부과 치료로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SORT



Grand Waikikian

와이키키 비치에
별장을 소유하는 행복
- 그랜드 와이키키안 -

호놀룰루 국제공항이 있는 하와이 주의 주도 오아후는 우리나라 초여름과 비슷하지만 습하지 않은 기후, 천혜의 자연환경, 명품 숭과 면세점, 미국에서 가장 큰 아웃도어 쇼핑몰 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과 여유로움, 도시가 제공하는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오아후 섬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비치 리조트 & 스파 내에 위치한 '그랜드 와이키키안'은 38층 규모의 최고급 별장식 리조트로 침실, 거실, 주방을 겸비해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가를 보내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컨시어지 서비스, 전용 라운지 등 투숙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함을 더한다.

그랜드 와이키키안이 자리한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비치 리조트 & 스파는 세계 최고의 리조트로 손꼽히며 와이키키 해변의 중심부에 위치,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다. '빌리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8만 9000㎡의 방대한 부지에는 열대식 정원과 폭포를 비롯해 5개의 수영장, 90개가 넘는 숭과 브랜드 매장, 22개에 달하는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구비했다. 호텔 인근 와이키키 해변에서는 스노클링과 서핑, 스쿠버다이빙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타임세어 오너십 세계의 호텔 리조트를 별장으로 삼다

휴식을 위해 떠나는 휴가인 만큼
'내 집처럼' 편안한 곳에서 머물다 와야 만족지수가
높은 법이다. 힐튼 호텔 계열의 최고급
별장식 리조트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의 타임세어
오너십은 고객의 이런 심리를 공략한 서비스.
기존 호텔 리조트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타입의
별장식 호텔을 소개한다.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다. 그러나 여행의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낯선 곳으로 떠나기보다는 익숙한 곳에서 편안히 즐기다 오는 여행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매년 같은 곳으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의 심리가 이해되기 시작한다면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클럽의 타임세어 오너십에 주목하자. 타임세어 오너십은 호텔 리조트를 시간 단위로 공유하는 것으로, 1년을 52주로 나눠 원하는 주(週)만큼 소유·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이 운영하는 특정 리조트의 오너십을 구입했다면 평생 오너로서 매년 회원이 소유한 기간(일주일)을 기본으로 주 단위로 기간 산정가능) 동안 개인 별장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오너십으로 가입한 리조트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출장이나 휴가를 가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 세계 100개국에 위치한 3750여 개 힐튼 호텔이나 제휴 호텔에서 대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내에 소유한 기간을 다 쓰지 못한다 해도 손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 다음 해로 연기하거나 친지나 친구가 대신 사용할 수도 있어 매우 활용도가 높다. 또한 오너십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과 같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타인에게 매매, 양도 및 상속도 할 수 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해외 별장을 마련하는 데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터. 게다가 지구상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하와이에 언제고 갈 수 있는 '내 집 같은' 별장을 소유한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Hilton
Grand Vacations



Kings' Land

골프 마니아들을 위한
천상의 별장
- 킹스랜드 -

하와이 섬은 하와이 제도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일명 '빅 아일랜드'로 불린다. 환상적인 골프 코스가 있는 '킹스랜드'는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볼 수 있는 하와이 섬 최고의 고급 리조트 지구인 코할라 코스트의 와이폴로아 비치 리조트 내에 자리한다. 하와이풍으로 디자인한 킹스랜드의 모든 객실에서는 골프 코스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대규모 부지 클럽하우스에는 다양한 시설이 구비돼 있다.

킹스랜드가 자리한 와이폴로아 비치 리조트는 아름다운 해변과 골프 코스로 골퍼들 사이에서 '선망'의 리조트로 손꼽힌다. 일반 리조트 호텔에 오션뷰가 있다면 와이폴로아에는 골프 코스 뷰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전경을 자랑하는 것. 리조트에는 두 개의 챔피언십 골프 코스가 있는데, 킹스 골프 코스는 빅 아일랜드의 장관 사화산으로, 비치 골프 코스는 아무리 뛰어난 골퍼라도 피하기 쉽지 않은 거대한 워터헤저드로 유명하다. 특히, 구불구불한 파 5홀은 겨울에는 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절호의 포인트로 인기가 있다.

*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은 밀레니엄 서를 힐튼 내
세일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및 예약 02-2055-3340~3341, www.hgvc.co.kr

BULLETIN

Gallery

구본정展 '오만과 편견'
매끈한 가죽과 하늘로 뻗은 갈기를 지닌 동물과 나란히 배치된 건물이 있는 곳은 뉴욕의 월 스트리트. 좁은 길로 이어진 이 오랜 동네는 그 자체로 완결된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의 생물체로 완결된 동물과 월가는 작가의 그림 속에서 서로 밀접거리며 섞이지 않은 채 병치되어 있다. 각자 타자가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는 서로에게 오만하고, 그 오만은 서로에게 편견을 구축한다. 7월 28일까지 을사아트에서 열린다. 문의 02-735-1139



Home Theater



심플한 구성, 입체적 사운드
홈시어터의 명가 '보스(BOSE)'에서 선보이는 '씨네메이트 1SR(CineMate®1SR)'은 스피커 하나로 입체음향을 구현하는 프리미엄 홈시어터다. 사운드바 형태를 도입한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공간감 넘치는 웅장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사용자의 방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최상의 서라운드 음향을 잡아주는 스마트 시스템(보스 독자적 기술인 ADAPTiQ®)이 내장되어 어느 환경에서도 입체음향을 즐길 수 있다. 보스 홈시어터는 롯데, 신세계 등 전국 주요 백화점 내 BOSE 직영매장과 청담동 직영매장에서 체험해볼 수 있다. 242만 원. 문의 02-3446-3003



Watch

클래식한 커플 워치
몽블랑 워치 하우스의 오랜 노력과 장인들의 열정을 담아 탄생시킨 스타 컬렉션은 몽블랑의 클래식한 디자인과 뛰어난 워치 메이킹 기술력이 결합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스타 데이트 오토매틱 컬렉션'은 화이트 실버 컬러 기요세 다이얼에 로마숫자를 장식해 클래식한 느낌을 강조했다. 케이스 뒷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창을 통해 몽블랑의 기술력이 집약된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장인의 손길에 깃든 아름다운 메커니즘도 감상할 수 있다. 동일한 디자인에 36mm 다이얼의 여성 모델과 39mm 다이얼의 남성 모델로 출시된다. 문의 02-3485-6627

Cigar

소장 가치 높은 한정판 시가

쿠바산 시가를 수입·유통하는 피에르시카(PIERRE CIGAR)에서 한정판 쿠바 시가를 선보인다. 이번 시즌 새롭게 출시되는 쿠바 시가는 총 8종으로, 홍콩 퍼시픽시가의 20주년을 기념해 만든 '엘레이델문도 애니버시ario'는 오직 아시아에서만 만나볼 수 있어 해외 시가 마니아들 사이에서 그 소장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시가다. 또한 우프만 로부스토, 파르타가스 C No.3와 몬테크리스토 520은 2012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어 시가를 즐기는 애호가라면 주목할 만하다. 문의 02-790-4522



AARP, 韓 기업 대상 '고령친화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전 세계 최대의 시니어 커뮤니티인 AARP(미국은퇴자협회)는 지난 6월 24일 '더클래식 500'에서 AARP의 한국 사무소 역할을 하게 되는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기업 ㈜시니어파트너즈(대표 박은경)와 함께 '2014 AARP 고령친화기업 인증'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령친화기업 인증사업(The 2014 AARP Best Employers International Award)'은 전 세계 기업 중 인적자원 활용에 있어 50대 이상 근로자의 미래를 위해 혁신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200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2010년부터는 전 세계 각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을 확장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령친화기업 인증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 참여해 10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며, 2014년 4월 접수가 마감된다. 인증 기업은 2014년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AARP의 조쉬 클렛 부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AARP 고령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전 세계 주요 기관과 기업, 미디어는 물론 AARP의 전체 회원들에게 그 사실이 공표되는 등 기업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AARP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국제 포럼에 참석해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얻는다"고 말했다. 문의 02-3218-6240

AARP



GlaxoSmithKline

5060세대를 위한 폴리덴트 청춘콘서트

세계적인 제약회사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은 지난 6월 22일, 대학로에 위치한 SH 아트홀에서 'GSK 폴리덴트 청춘콘서트'를 무료로 개최했다. 이야기, 음악, 건강 등 총 37지 테마로, 5060세대 연예인들과 동 세대의 이야기를 나누고 즐기는 공감형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부는 방송인 이상벽과 함께 '인생 2막'을 주제로 한 이야기, 2부는 가정의학 전문의 여 에스더가 '5060세대 젊음 찾기'를 주제로 구강 관리를 비롯한 시니어 몸 관리에 대한 건강 토크를 이어갔다. 3부에서는 세시봉 윤형주가 출연해 자신의 인생 스토리와 함께 감미로운 통기타 음악을 선사했다.

Review



Book

〈소식의 즐거움〉

이 책은 '소식'을 주제로 한 여느 책들과 다르다. 적게 먹는 것이 몸에 좋으니 실천해보라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소식이 몸뿐 아니라 마음도 성장시켜 인생 전반을 바꾸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한다. 저자는 소식을 하되, 아무렇게 대충 때우지는 말 것을 강조한다. 매번 식사를 축제처럼 즐기는 것이 인생을 찬란하게 만드는 비법이라고. 도미니크 크로저, 바다출판사



〈불평등의 대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갈수록 가난해지며 그 수는 늘어난다.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책은 불평등이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계화와 통화 정책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이 불평등의 심화에 어떻게 기여해왔는지를 분석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저, 열린책들



〈우주극장 : 이자송 영상 회화〉

이자송. 그는 1972년 광고계에 입문해 1990년대까지 CF 감독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2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단편영화 '1/75'를 발표하며 영상 작가로 데뷔, 활발한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영상전 '해탈, 動과 해탈, 靜을 리미 갤러리와 트림갤러리81에서 각각 열었다. 책에는 작가의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動)의 장면(靜)을 담았다. 김연숙 외 3인 공저, 수류상방



〈내망원 內望顯〉

우리의 삶에 건강과 의료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현미경으로 살펴보고,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망원경으로 내다본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현대의학의 기능주의, 이들 사이의 엇박자가 우리 삶의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 의사로 10년, 의학 전문기자로 14년을 살아온 저자가 통찰하면서도 따뜻하게 풀어내는 의료와 건강,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 김철중 저, 도서출판MID

가적으로 만나는 가장 매력적인 탄생

2014쏘나타어트랙션탄생



쏟아타더 브릴리언트 사운드 프로젝트 소리와 가장 먼 사람들까지 소리와 함께 달리게하자

지금, 현대자동차 페이스북에서 뮤직시트영상을 감상하세요. **쏟아타더** 타자를 뮤직시트를 전국 농·학·교에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자동차 페이스북에서 확인! <http://www.facebook.com/AboutHyundai>

쏘나타더 브릴리언트 스토리 쏘나타와함께 추억일상등 친한히 보내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간: 2013년 6월 10일 ~ 7월 31일 **방명: 대표번호 5656으로 문자송부 (스폰서첨부 가능, 정보이용료 100원 본인부담)**
※ 온라인 참여, 경품 등 자세한 이벤트 안내는 이벤트 사이트 (www.sonatastory.com) 또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참조



자동차에 감성을 더하다
SONATA
The brilliant



HYUNDAI |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illegible]